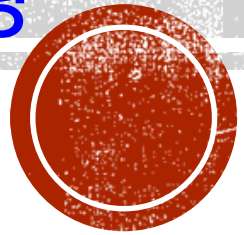


2019. 2월 입시 큐레이션

- 최상위 대학 선배들이 **솔직하게** 알려주는
전공에 적합한 과목선택과 전공별 취업현황-



前 EBS입시전문위원
前 대학입학사정관
現 대성학원 평가실장
성 재 윤

<참고 자료 및 인터뷰이>

송파강동 고교대입 현황 및 분석 - 내일신문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

서울대 발간 고교생활가이드북(2018)

대학알리미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
강남구 D고 진학부장님

서울대학교 철학과 A학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학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C학생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D학생

연세대학교 화학과 E학생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F학생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G학생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H학생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I학생

외 성재윤소장 제자 일동



□ 주요 내용

1. 송파 고교 대입 현황과 분석
2. 진로, 계열, 전공 배경지식
3. 3개 주요대학 전공별 취업률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포함)
4. 최상위 대학 선배들이 추천하는 전공별 과목 선택 요령
5. 같은 활동 다른 의미



표1) 2016~2018년 송파구 고교 총 신입생 수 변화 (일반고15개, 자사고1개)

연도 / 증감	총 신입생 수	총 남학생 수	총 여학생 수
2016년	6,065	3,056	3,009
2017년	4,946	2,468	2,478
2년간 학생 수 증감	-1,119	-588	-531
2018년	4,235	2,173	2,062
3년간 학생 수 증감	-1,830	-883	-947

★ 2018년 신입생 100명 이상 감소 고교
문정고, 보성고, 배명고, 영동일고, 잠실여고, 잠신고(과중), 정신여고, 창덕여고 (최다 감소 388명→158명)

★ 2018년 신입생 100명 이하 감소 고교
보인고(자사고) 435명 → 403명, 가락고 356명 → 260명, 문현고 302명 → 211명, 방산고(과중) 383명 → 284명
오금고, 잠실고, 영파여고, 잠일고 (원래 소규모 학교)

★ 학급 수는 변화 적음 (학생부 창체 및 세특에서 학생 부각 가능성 커짐)

★ 결국 본인 하기 나름



학교명	배명고 (남고)	방과후 학교, 기숙사, 체육중점학교
2018 대입 실적	서울대 1명, 연대 3명, 고대 3명, 서강대 1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5명, 중앙대 5명, 경희대 1명, 한국외대 4명, 서울시립대 3명, 건국대 2명, 동국대 4명, 홍익대 3명, 공사 2명, 육사 1명, 서울교대 1명, 포스텍 1명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수시 90% vs 정시 10% 비전스쿨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비전스쿨 졸업생 15명 멘토단 운영 명정인재반 운영(기숙사, 소논문, 심화교과, 1인 1악기, 역사문화탐방 등)	
기타 특징	<p>2018 서울시 204개 후기 일반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배명고는 7.52:1로 송파구 고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p> <p>(여학생 강세가 두드러진 남녀공학을 회피하고 남고를 선호하는 중3 남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 성향, 입시의 핵심 경쟁력인 내신 관리, 전통 있는 사립고) 가락동 헬리오시티 대단지 아파트로 배정받는 학생 증가</p>	



학교명	보성고 (남고 112년)	이상, 조정래, 김용옥
2018 대입 실적	서울대 9명, 연세대 30명, 고려대 21명, 서강대 16명, 성균관대 16명, 한양대 16명, 경찰대 2명, 카이스트·지스트 3명, 의치한의대 18명 전통적 이과 강세 학교임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재학생 비율 높고 최근 문과도 선전 수시 2 : 정시 1 보아반운영 SDL 글로벌 리더십 프로젝트(자기주도학습, 과제연구, 융합교육, 글로벌비전 및 리더십) STEAM 교육, 과학반·발명영재 교육,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일반’ 시범학교로 지정, 연구선도학교로 선정, 고1 대상의 창의 융합 교육 + 디자인씽킹교육 진행 보성 후마니타스 강연회, 라이브러리 리터러시(독서역량 강화교육)	
기타 특징	교내외 활동을 세분화해 담당교사가 항목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리더십 인증제’, 학생들끼리 멘토-멘티 팀을 구성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는 ‘보성 프렌드십’ 등 교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학교명	보인고 (송파 유일 자사고)	송파, 강동, 광진 최고 실적
2018 대입 실적	<p>서울대 13명을 비롯하여 연세대 · 고려대 53명, 서강대 · 성균관대 · 한양대 69명, 의대와 치대 15명, 한의대 2명, 경찰대 1명,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10명, KAIST 5명을 포함한 이공계 특수대학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p> <p>서울 상위권 10개 대학에 228명, 서울권 주요 대학에 330명</p>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p>수시 : 정시 = 5:5 (합격생 중 재학생 비율 70%)</p> <p>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야간 자기주도학습(강제 아님)</p> <p>주문형 강좌, 방과후 강좌 300개 이상</p> <p>보인 진학 프로그램</p>	
기타 특징	<p>오수 시간(낮잠 30분) 운영</p>	



학교명	배재고 (강동 유일 자사고, 남고)	송파, 강동, 광진 최고 실적
2018 대입 실적	서울대 13명(수시8·정시5), 의대·치대·한의대 15명, 연세대 24명(수시17/정시7), 고려대 26명(수시15/정시11)을 비롯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의 상위 10개 대학에 177명(졸업생 제외)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서울소재 대학 합격은 206명(졸업생 제외)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수시 : 정시 = 7:3 (합격생 중 재학생 비율 70% 이상) 프리칼리지 배재 운영. (의치한반, 공학반, 인문학반, 자연과학반, 사회과학반 구성) 서울시 진학지도지원단 무료 상담 제공 – 이정형 진로진학부장 뛰어난 고교캠퍼스(만팔천평 규모 캠퍼스-대학캠퍼스 급) 기숙사(우남학사 연인원 400명 이상)-서연고 합격생 47% 배출	
기타 특징	“인증제, 팀플레이, 팀 토론대회 등 주어진 과제에 ‘함께’ 그리고 ‘더불어 빠져드는’ 활동을 통해 남학생들의 강점인 ‘역전의 기회’제공. 배제인증.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은 배재인증을 통해 협력·경쟁 ‘Best one’이 아닌 ‘Each one’ & ‘All together’	



학교명	영동일고	
2018 대입 실적	<p>서울대 6명, 연세대 10명, 고려대에 17명. 의치한 3명, 성균관대는 16명, 서강대 14명, 한양대 9명, 이화여대 11명. 서연고에 33명, 서성한이 50명, 중경외시 26명</p>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p>이데아 아카데미 (고1~고3 70명 선발) 운영 중. 개인별 소학습실과 인터넷 강의를 듣는 멀티실, 스터디룸 등 영동일고 졸업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졸업생 멘토링</p>	
기타 특징	<p>진로와 관련해 전공적합성을 찾기 위한 학교 활동. 진로체험 한마당. ‘진로 탐색-소감-발표’의 단계 통해 학생 스스로 내실을 기함. 올해는 판교에 위치한 차병원그룹 차바이오 콤플렉스의 연구실 단지를 투어하고 한국은 행 청소년 경제 강의 참여,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 견학 탐방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p>	



학교명	영파여고	
2018 대입 실적	서울대 합격생은 모두 문과생 3명의 학생이 합격했는데 지리교육, 인문대학, 스페인어과에 진학했다. 연세대는 5명, 고려대는 6명, 이화여대 4명, 성균관대 3명 등 교대(합격자 6명)를 포함하여 99명의 학생이 서울권 4년제 대학교에 합격.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진로진학 서포트제 운영 1학년은 자기주도학습과 심화공부의 기반 다지기 중심, 2학년은 자기주도학습과 심화공부 기반 다지기에 학종 가이드. 3학년 때는 학종 가이드에 집중. 학생개인 맞춤형지도 실시 (3월부터 자소서 지도 등)	
기타 특징	기적의 100일 프로젝트-수포자 대책반 운영	



학교명	참실여고	실력과 인성
2018 대입 실적		서울대 4명(수시3 / 영어교육, 윤리교육, 인문계열, 생명과학,), 연세대 14명(수시 8명), 고려대 9명(수시 8명), 한의대 1명, 이화여대 14명(수시 13명), 서강대 6명(수시 3명), 성균관대 10명(수시 5명), 한양대 4명(수시 3명), 중앙대 8명(수시 7), 경희대 6명(수시 4), 한국외대 7명(수시 3), 서울시립대 4명(수시 2), 건국대 4명(수시 1), 동국대 3명(수시 3), 홍익대 8명(수시 5), 숙명여대 13명(수시 8).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수시: 정시=3:2 (재학생 : 졸업생 비율과 동일) 수시로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재학생을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종합 52%, 논술 25%, 적성 8%, 학생부교과 7%, 특기 6%, 실기 1% 합동대입연구회 운영
기타 특징		진로탐색박람회는 직종별로 40여명의 직업인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 대학생들의 강연, 멘토링도 함께 진행. 올해 신설된 희망대학 탐방은 고1~2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10개 희망 대학 캠퍼스를 찾아간다. 학생들은 해당 대학 재학생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입학사정관들로부터 대입 전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학교명	정신여고	130년의 역사와 인성 중시
2018 대입 실적	<p>서울대 3명(자유전공학부·전기정보공학부·국어교육과 /수시2), 연세대 18명(수시11), 고려대 13명(수시9), 서강대 10(수시5), 성균관대 13명(수시11), 한양대 3명(수시2), 이화여대 25명(수시20), 중앙대 18명(수시9), 경희대 7명(수시3), 한국외대 18명(수시5), 서울시립대 3명(수시2), 건국대 4명(수시4), 동국대 15명(수시3), 홍익대 13명(수시9), 숙명여대 13명(수시9) .</p> <p>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의치한 11명의 합격생을 배출.</p>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p>수시:정시=6:4</p> <p>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50%여로 가장 높고, 다음이 논술, 특기자전형, 적성 순이다. 특히 연세대 특기자전형에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것도 정신여고만의 강점.</p> <p>심화반 및 논술대비반, 독서미디어토론대회 운영</p>	
기타 특징	<p>수시전형이 있기 전부터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은 역사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신여고 대입의 특징점.</p> <p>유 교사는 “입시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진행되어오던 프로그램들이라 전문성과 네트워크, 운영노하우가 탄탄하다”며 “여기에 2000명 수용 가능한 대강당, 다목적강당, 도서관, 과학실험실 등의 교육환경도 탁월해 학생들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p> <p>또 “교내 프로그램은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학생들의 자율성 또한 중시.</p>	



학교명	창덕여고	논술과 정시에 강한 학교
2018 대입 실적	<p>서울대 3명, 연세대 8명, 고려대 11명, 이화여대 9명 등 주요 15개 대학 합격생이 총 97명. 주요 15개 대학 합격생 중에서 수시합격자는 54명이며 정시합격자는 43명.</p> <p>수시 합격자 중 학생부교과가 5명, 학생부종합은 21명, 논술전형은 49명이 합격으로 논술에서 강세. 서울대는 수시 2명, 정시 1명이 합격했으며 연세대는 수시 2명, 정시 6명으로 정시에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려대는 재학생 합격자 11명 전원이 수시에서 합격했다. 이화여대는 수시 5명, 정시 4명이 합격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비슷.</p>	
수시/정시 비율 및 학교 프로그램	<p>과학영재학급 운영 (수학, 과학 중심)</p> <p>인문사회 심화아카데미(방과 후 학교임 : 토론, 글쓰기, 현장답사 등)</p> <p>독서창의캠프(독서토론, 마인드맵, 독서 신문 만들기 등)</p> <p>백송스터디 그룹(보고서와 동영상 만들기 및 제출, 학기 단위)</p>	
기타 특징	<p>셀프리더십 진로 몰입 캠프는 1, 2학년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2개 반을 운영하여 활동중심과 집단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기이해 및 목표관리, 시간관리, 학습관리를 진로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다.</p>	



□ 주요 내용

1. 송파 고교 현황
2. 진로, 계열, 전공 현황
3. 3개 주요대학 전공별 취업률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포함)
4. 최상위 대학 선배들이 추천하는 전공별 과목 선택 요령
5. 같은 활동 다른 의미



단순 명료한 결론이 있는 설명회

- ◎ 대학별 취업률은 의미가 없다. (참고:새빨간 거짓말 통계-대럴 허프)
- ◎ 대학의 시대로부터 전공(전문가)의 시대로.
- ◎ 잘 키운 제자(합격생)이 전문가(입학사정관, 컨설턴트)보다 낫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 Leonardo da vinci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I-1-1. 계열 구분과 계열 별 학과 (표준 계열 분류 기준)

인문사회 계열 (6소계열)			자연과학 계열 (8소계열)			공학 계열 (7소계열)			예체능 계열 (6)					
언어 문학	언어학	사회 과학	심리학	수학 물리 천문 지구	식품영양학	건설	건축학	재료	금속공학	무용	무용			
	국어국문학		사회학		조리과학		반도체공학		체육		체육			
	독일어문학		정치외교학		의류/의상학		신소재공학		연극		연극			
	러시아어문학		국제학		주거학		세라믹공학		영화		영화			
	스페인어문학		사회복지학		의예과		재료공학		방송연예		방송연예			
	영어영문학		아동가족학		치의예과		화학공학		공예		공예			
	일본어문학		소비자/가정자원		한의예과		에너지공학		디자인		디자인			
	중국어문학		언론/방송/매체		수의예과		고분자공학		순수미술		순수미술			
	프랑스어문학		도시/지역/지리		약학		생명공학		응용미술		응용미술			
	기타아시아어문학		행정학		한약학		섬유공학		미술학		미술학			
인문	기타유럽어문학	인류학	작물/원예학	농림 수산	보건학	기계	기계공학	산업 안전	산업공학	음악 국악	작곡			
	교양어문학	문헌정보학	산림학		재활치료		자동차공학		안전공학		성악			
	철학/윤리학	교양사회과학	축산학		임상보건		전기공학		방재공학		기악			
	역사/고고학	경영학	수산학		보건관리		전자공학		공학교육		국악			
	종교학	경제학	농림수산환경 생태학		피부미용		제어계측공학		교양공학		실용음악			
	문화/민속/ 미술사학	경영정보학	농림수산바이오		중등자연 과학교육		응용소프트 웨어공학				음악이론			
	국제지역학	금융/회계/세무	시스템공학		간호/보건교육		의공학				사진			
	교양인문학	무역/유통학	식품가공학		기타 교양자연과학		광학공학				만화			
	교육	교육학	광고/홍보학		의학 계열				전기 전자 컴퓨터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 예술	애니메이션	
		중등언어교육	관광학		의료		의학				정보/통신공학		게임	
중등사회교육		부동산	치의학	영상예술										
유아교육학		법학	한의학	음악										
초등교육		기타 비서학	수의학	교육		중등예술/ 체육교육								
특수교육학						기타	뷰티아트							



배경지식 : 계열별 유망 학과 (문과/이과 기준)

학과 전망 (자연계)	구분	학과 전망 (인문계)
의학계열 및 전자. 화공. 기계	성골	학교가 어디야?
수학, 자동차공학, 융합전자공, 소프트웨어공	진골	학교가 어디야?
조선공, 에너지공, 재료(신소재), 산업공	6두품	학교가 어디야?
생명, 화학, 조경 컴퓨터, 정보통신	상인	학교가 어디야?
물리, 지구과학, 토목, 건설, 원예	서얼	학교가 어디야?

- ※ 인문계열의 비애 — 문송합니다, 문레기, 인구론.
- ※ 자연계열도 안전하지 않다 — 닭튀김 수렴공식
- ※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적성이 전망입니다.



2017년 상위17개대학 졸업생 취업 현황

학교명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기타	미상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 종사자	1인 장(사)업자	프리랜서							
성균관대	75.1%	4227	2254	8	0	5	28	154	633	31	0	298	6	810	0
한양대	69.6%	3673	1838	4	0	19	15	145	532	20	2	205	9	884	0
연세대	68.7%	4229	2008	4	0	4	15	137	867	42	1	150	15	986	0
서울대	68.3%	3273	1305	1	0	0	9	125	1047	52	1	57	7	669	0
고려대	68.2%	4484	2201	1	0	0	17	150	793	44	1	168	2	966	141
통국대	67.3%	3114	1548	10	0	12	24	132	226	17	0	242	65	838	0
서강대	67.3%	1799	912	3	0	0	9	56	302	5	4	26	6	451	25
인하대	66.8%	3981	2175	10	0	3	21	147	359	13	0	68	15	932	238
중앙대	65.4%	5363	2633	6	0	33	35	318	502	24	0	191	24	1008	589
홍익대	64.3%	4244	2260	8	0	1	41	227	237	10	0	40	14	1242	164
서울시립대	64.2%	1991	1053	2	0	0	8	67	177	4	1	41	7	631	0
경희대	63.8%	5693	2782	8	0	0	28	264	520	39	1	280	22	1749	0
단국대	63.6%	5857	3034	27	0	20	44	295	403	25	2	39	14	1931	23
숙명여대	63.0%	2635	1274	3	0	17	15	176	242	0	1	24	10	873	0
이화여대	62.7%	3429	1479	5	0	64	18	152	606	0	5	72	6	1022	0
건국대	60.9%	3676	1717	3	0	8	21	164	301	12	3	206	12	1229	0
한국외대	60.1%	3844	1854	32	0	0	23	195	260	6	0	65	14	1395	0
계	65.6%	65512	32327	135	0	186	371	2904	8007	344	22	2172	248	17616	1180

*자료=대학알리미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 *취업률=취업자/(졸업자-취업률 미산정 지표)x100 *취업률 높은 순(이하 표 설명 동일)

2017년 교대 졸업생 취업현황

학교명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기타	미상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장작 활동 종사자	1인 장(사)업자	프리랜서							
대구교대	82.1%	433	334	0	0	0	0	1	9	15	0	0	1	73	0
광주교대	81.6%	353	268	0	0	0	0	3	4	16	0	0	1	49	12
진주교대	78.5%	325	241	0	0	0	1	2	0	13	0	0	1	67	0
춘천교대	77.9%	335	246	0	0	0	0	4	0	11	0	1	2	71	0
공주교대	77.7%	380	280	0	0	0	0	5	1	11	0	0	1	82	0
청주교대	75.1%	313	228	0	0	0	0	4	1	3	0	0	0	77	0
부산교대	74.4%	390	275	0	0	0	0	1	0	19	0	0	0	95	0
경인교대	73.2%	646	451	0	0	0	0	15	0	6	0	1	2	171	0
전주교대	56.1%	294	150	0	0	0	0	1	0	21	1	0	3	118	0
서울교대	48.4%	388	147	0	0	0	0	22	28	11	0	0	0	180	0
계	72.9%	3857	2620	0	0	0	1	58	43	126	1	2	11	983	12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594	1,633	1,476	778	3	5	0	0	2	3	19	9	79	75	433	200	31	0	0	110	188	2	4	75.1
경영학과	236	166	147	77	0	2	0	0	0	0	0	0	2	1	14	6	0	0	0	43	58	1	0	81.8
글로벌경영학과	44	41	28	28	0	0	0	0	0	0	0	0	1	0	8	6	0	0	0	1	0	0	0	81.4
건설환경공학부	4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5.
건축공학과	9	2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40.
건축학과	33	17	20	9	0	0	0	0	0	0	1	0	2	1	3	1	0	0	0	0	0	0	0	71.7
고분자시스템공학과	19	8	13	4	0	0	0	0	0	0	0	0	1	0	4	2	0	0	0	0	0	0	0	85.7
기계공학부	238	21	158	10	0	0	0	0	0	0	2	0	3	1	45	7	1	0	0	3	1	0	0	86.1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15	3	7	2	0	0	0	0	0	0	1	0	0	0	5	0	0	0	0	0	0	0	0	76.9
시스템경영공학과	76	12	45	8	0	0	0	0	0	0	1	0	2	1	14	0	0	0	0	2	0	0	0	79.2
신소재공학부	122	28	70	11	0	0	0	0	0	0	0	0	3	2	31	4	0	0	0	1	2	0	1	77.5
조경학과	4	5	1	2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1	1	0	0	71.4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10	4	6	3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81.8
화학공학부	146	64	94	39	0	1	0	0	0	0	0	0	1	0	39	14	0	0	0	3	6	0	0	91.2
국어국문학과	18	53	10	23	0	0	0	0	0	0	0	0	0	3	3	6	0	0	0	3	8	0	0	70.6
독어독문학과	12	31	6	16	0	0	0	0	0	0	0	0	1	1	0	5	0	0	0	0	0	0	0	63.2
러시아어문학과	24	19	10	11	0	0	0	0	0	0	0	0	1	1	2	2	0	0	0	0	0	0	0	59.
문헌정보학과	17	22	12	10	0	0	0	0	0	0	0	0	1	1	2	4	0	0	0	0	0	0	0	72.7
사학과	29	31	15	18	0	0	0	0	0	0	0	0	2	0	7	4	0	0	0	0	0	0	0	71.4
영어영문학과	29	74	16	25	0	0	0	0	0	0	0	1	0	4	4	7	0	0	0	1	13	0	0	59.
중어중문학과	24	36	17	21	0	0	0	0	0	0	0	0	0	1	1	3	0	0	0	2	8	0	0	84.8
철학과	33	17	10	8	0	0	0	0	0	0	1	0	1	0	9	3	1	0	0	0	0	0	0	54.1
프랑스어문학과	11	37	5	21	1	0	0	0	0	0	0	0	0	1	1	1	1	0	0	0	4	0	0	68.3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문학과	7	9	4	2	0	0	0	0	0	0	0	0	0	1	2	3	0	0	0	0	0	0	63.6	
법학과	87	11	30	6	0	0	0	0	0	0	3	0	4	0	9	1	4	0	0	0	0	0	51.2	
교육학과	20	23	14	13	0	0	0	0	0	0	0	0	1	1	0	1	0	0	0	0	0	0	69.	
컴퓨터교육과	24	18	17	9	0	0	0	0	0	0	0	0	0	0	3	1	0	0	0	0	0	0	68.4	
한문교육과	17	15	8	6	0	0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50.	
글로벌리더학부	16	22	9	7	0	0	0	0	0	0	0	0	0	0	5	10	1	0	0	0	0	0	72.7	
사회학과	14	14	7	7	0	0	0	0	0	0	0	0	1	0	2	2	0	0	0	1	0	0	65.2	
소비자가족학과	36	43	21	24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1	12	0	83.3	
신문방송학과	36	52	17	23	0	0	0	0	0	0	0	0	2	0	2	0	0	0	0	8	19	0	71.2	
심리학과	13	51	6	11	0	1	0	0	0	0	0	0	1	6	1	10	0	0	0	2	11	0	62.5	
아동·청소년학과	3	17	0	2	0	0	0	0	0	0	0	0	1	2	0	0	0	0	0	1	8	0	55.6	
정치외교학과	39	23	18	9	0	1	0	0	0	0	0	0	0	1	4	2	1	0	0	2	1	0	55.8	
행정학과	28	35	16	16	0	0	0	0	0	0	0	0	1	1	1	3	0	0	0	2	3	0	63.	
소프트웨어학과	12	5	1	2	0	0	0	0	0	0	0	0	0	0	10	2	1	0	0	0	0	0	75.	
컴퓨터공학과	57	9	32	2	0	0	0	0	0	0	0	0	1	0	14	3	2	0	0	1	1	0	77.8	
스포츠과학과	55	6	25	2	0	0	0	0	0	0	2	0	8	1	2	1	5	0	0	0	0	0	71.7	
약학과	34	30	14	21	0	0	0	0	0	0	0	0	0	0	9	8	9	0	0	0	0	0	92.1	
디자인학과	9	35	6	20	0	0	0	0	0	0	0	1	0	2	0	1	0	0	0	0	0	0	67.4	
무용학과	3	44	3	8	0	0	0	0	0	0	0	1	0	14	0	7	0	0	0	0	0	0	65.	
미술학과	5	42	1	8	0	0	0	0	0	2	0	0	2	8	2	6	0	0	0	0	0	0	53.8	
연기예술학과	12	11	3	4	0	0	0	0	2	1	2	1	4	2	0	0	0	0	0	0	1	0	86.4	
영상학과	20	25	7	13	1	0	0	0	0	0	1	0	2	1	4	4	0	0	0	2	4	0	80.6	
의상학과	10	43	4	20	0	0	0	0	0	0	1	1	1	1	1	2	0	0	0	2	8	0	70.	

[illegible]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419	1,810	1,188	820	2	2	0	0	1	3	12	3	74	63	567	300	42	1	0	55	95	2	13	68.7
간호학과	11	66	6	54	0	0	0	0	0	0	0	0	0	0	2	1	1	0	0	0	1	0	1	84.5
경영대학 경영학과	107	68	84	41	0	0	0	0	0	0	0	0	1	0	6	2	0	0	0	0	7	0	0	78.8
경영학과	175	114	104	65	1	0	0	0	0	0	1	0	2	1	28	20	1	0	0	1	5	0	1	74.7
건축공학전공	36	9	24	5	0	0	0	0	0	0	0	0	2	1	3	1	0	0	0	0	0	0	0	78.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27	12	15	6	0	0	0	0	0	0	0	1	1	0	4	1	1	0	0	1	0	0	0	71.9
글로벌융합공학부	14	3	2	0	0	0	0	0	0	0	0	0	0	0	11	3	0	0	0	0	0	0	0	66.7
금속시스템공학전공	5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0.
기계공학과	124	6	61	3	0	0	0	0	0	0	1	0	1	0	33	1	0	0	0	1	1	0	0	70.2
도시공학과	26	8	14	2	0	0	0	0	0	0	0	0	1	0	5	5	0	0	0	1	0	0	0	73.9
생명공학전공	3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50.
세라믹공학전공	8	0	3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57.1
신소재공학전공	88	25	36	15	0	0	0	0	0	0	1	0	1	0	40	6	1	0	0	1	0	0	0	81.5
전기전자공학전공	210	17	94	9	0	0	0	0	0	0	0	0	4	0	83	4	2	0	0	6	2	0	0	82.3
정보산업공학전공	40	9	21	3	0	0	0	0	0	0	0	0	0	0	12	3	0	0	0	1	1	0	0	75.
컴퓨터과학학과	76	9	40	5	0	0	0	0	0	0	0	0	1	0	20	4	1	0	0	1	0	0	0	78.
토목환경공학전공	70	18	37	5	0	0	0	0	0	0	0	0	1	0	12	8	1	0	0	1	0	0	0	65.2
화공생명공학전공	85	26	35	17	0	0	0	0	0	0	0	0	1	0	36	5	1	0	0	2	3	0	0	82.8
교육학과	19	42	11	11	0	0	0	0	0	0	0	0	1	3	2	7	1	0	0	0	0	0	0	51.
스포츠레저학과	44	9	18	3	0	0	0	0	0	0	0	0	5	1	3	2	7	0	0	0	1	0	0	67.5
체육교육과	26	6	10	0	0	0	0	0	0	0	1	0	8	3	1	0	1	0	0	0	0	0	0	73.3
국어국문학과	23	38	8	13	0	0	0	0	0	0	1	0	1	1	6	7	0	0	0	0	1	1	0	52.2
노어노문학과	12	20	7	7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0	2	0	0	53.8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독어독문학과	15	23	5	14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1	1	0	0	59.4	
문헌정보학과	18	29	9	15	0	0	0	0	0	0	0	0	0	2	0	0	3	0	0	0	0	0	1	60.5	
불어불문학과	16	34	7	11	0	1	0	0	0	0	0	0	0	0	3	6	0	0	0	0	0	0	0	46.3	
사학과	40	22	20	11	0	0	0	0	0	0	0	0	0	1	1	6	2	2	0	0	0	1	0	2	67.3
심리학과	16	49	5	21	0	0	0	0	0	0	0	0	1	2	1	5	10	0	0	0	1	3	0	0	65.2
영어영문학과	21	63	10	26	0	0	0	0	0	0	0	0	0	1	4	2	9	0	0	0	0	3	0	0	58.6
중어중문학과	13	39	9	20	0	0	0	0	0	0	0	0	0	0	1	2	4	0	0	0	0	0	0	1	66.7
철학과	31	14	9	2	0	0	0	0	0	0	0	0	0	0	0	8	7	1	0	0	0	0	1	0	39.3
법학과	57	2	3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2	0	0	0	0	0	0	55.6
문화인류학과	9	13	6	6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1	0	1	66.7
사회복지학과	17	22	5	12	0	0	0	0	0	0	0	0	0	2	1	3	3	1	0	0	0	1	0	0	64.5
사회학과	43	37	27	11	0	0	0	0	0	0	0	1	0	1	3	8	6	0	0	0	2	4	0	0	71.7
언론홍보영상학부	31	58	16	28	0	0	0	0	0	0	0	1	0	1	4	3	5	0	0	0	2	9	0	1	72.5
정치외교학과	49	74	20	28	0	0	0	0	0	0	0	0	0	1	3	14	9	0	0	0	4	2	0	1	55.9
행정학과	56	60	32	27	0	0	0	0	0	0	0	0	0	2	1	5	8	0	0	0	1	0	0	0	60.8
경제학과	175	96	110	56	1	0	0	0	0	0	0	0	0	1	4	29	16	3	0	0	2	2	0	0	78.5
응용통계학과	40	37	30	24	0	0	0	0	0	0	0	0	0	1	2	7	3	0	0	0	1	0	0	1	87.7
생명공학과	20	13	2	0	0	0	0	0	0	0	0	0	0	1	0	11	10	0	0	0	0	0	0	0	25.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	9	3	1	0	0	0	0	0	0	0	0	0	0	1	0	7	3	0	0	0	0	0	0	0	100.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	2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0	0	1	33.3
생화학과	20	12	2	2	0	0	0	0	0	0	0	0	0	1	0	13	4	0	0	0	1	0	0	0	35.7
시스템생물학과	23	14	5	1	0	0	0	0	0	0	0	0	0	0	1	8	7	2	0	0	1	1	0	1	41.2
생활디자인전공	11	31	7	16	0	0	0	0	0	0	0	1	0	1	0	0	2	0	0	0	2	4	0	0	73.5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식품영양전공	6	23	3	5	0	0	0	0	0	0	0	0	1	0	1	10	0	0	0	0	1	0	0	52.9
실내건축학전공	10	22	7	10	0	0	0	0	0	0	0	0	0	1	0	2	1	0	0	0	1	0	1	66.7
아동가족전공	4	37	2	12	0	0	0	0	0	0	0	0	0	1	0	6	0	0	0	1	1	0	0	45.5
의류환경전공	3	30	2	14	0	0	0	0	0	0	0	0	0	1	0	3	0	0	0	0	1	0	0	58.6
신학과	33	16	13	6	0	0	0	0	0	0	0	0	1	1	5	2	0	0	0	0	0	0	0	50.
약학과(2+4학제)	17	19	4	15	0	0	0	0	0	0	1	0	2	0	6	3	3	0	0	0	1	0	0	95.7
문화·디자인 경영전공	0	20	0	12	0	0	0	0	0	0	0	0	0	1	0	2	0	0	0	0	0	0	0	72.2
아시아학전공	3	24	2	10	0	1	0	0	0	0	0	0	0	1	0	7	1	0	0	0	2	0	0	82.4
언더우드 경제학전공	24	28	15	14	0	0	0	0	0	0	0	0	0	3	2	1	1	0	0	3	4	0	0	78.
언더우드 국제학전공	9	36	4	9	0	0	0	0	0	0	0	0	1	1	1	4	0	0	0	2	12	0	0	57.7
언더우드 문학과문화전공	2	16	0	1	0	0	0	0	0	0	0	0	0	1	0	2	0	0	0	2	8	0	0	33.3
언더우드 생명과학전공	5	7	0	1	0	0	0	0	0	0	0	0	0	1	1	3	0	0	0	4	2	0	0	100.
언더우드 정치외교학전공	13	22	1	10	0	0	0	0	0	0	0	0	1	2	1	1	0	0	0	7	4	0	0	63.6
정보·인터랙션 디자인전공	2	5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1	0	0	33.3
창의기술 매니지먼트전공	1	5	1	3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80.
의학과	60	15	56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94.6
대기과학과	21	5	6	1	0	0	0	0	0	0	1	0	2	0	5	2	0	1	0	0	0	0	0	55.6
물리학과	39	5	4	2	0	0	0	0	0	0	0	0	1	0	23	3	2	0	0	0	0	0	0	43.8
수학과	47	8	18	4	0	0	0	0	0	0	0	0	3	0	16	0	0	0	0	0	0	0	0	64.1
지구시스템과학과	21	9	8	3	0	0	0	0	0	0	0	0	3	2	4	2	1	0	0	0	0	0	0	69.6
천문우주학과	25	9	3	0	0	0	0	0	0	0	0	0	2	0	15	8	0	0	0	0	0	0	0	45.5
화학과	31	19	4	5	0	0	0	0	0	0	0	0	0	1	22	9	2	0	0	0	0	0	0	58.8
치의학과	29	5	27	5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97.1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919	2,774	1,553	1,229	4	4	17	11	127	137	276	244	39	0	1	76	204	8	14	63.8
간호학과	4	78	3	67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87.7
경영학부	265	173	150	88	0	0	1	1	5	2	5	5	2	0	0	20	28	1	0	65.5
회계·세무학과	66	42	47	22	0	0	0	0	0	2	1	0	1	0	0	0	3	0	0	68.9
건축공학과	38	18	25	7	0	0	1	0	0	1	2	2	1	0	0	0	0	0	0	66.7
건축학과	22	24	14	18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73.9
기계공학과	162	19	109	12	0	1	0	0	3	0	16	1	0	0	0	0	0	0	0	76.2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49	6	24	5	0	0	1	0	0	0	9	0	0	0	0	0	0	0	0	65.2
산업경영공학과	55	31	32	17	0	0	0	0	2	1	1	2	0	0	0	2	0	1	0	65.
원자력공학과	46	9	11	3	0	0	1	0	3	0	21	5	0	0	0	0	0	0	0	62.1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56	19	34	10	0	0	0	0	1	2	6	3	0	0	0	0	0	0	0	71.2
화학공학과	69	42	40	20	0	0	0	1	1	2	10	9	0	0	0	0	0	0	0	69.6
환경학및환경공학과	19	18	10	7	0	0	0	0	0	1	5	3	0	0	0	0	1	0	0	64.3
국제경영학부	3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66.7
국제학과	72	94	40	48	0	0	0	0	3	6	2	5	2	0	0	0	4	0	0	63.4
국어국문학과	21	50	8	16	0	0	0	0	2	1	0	4	0	0	0	3	12	0	1	52.9
사학과	17	23	4	9	0	0	0	0	1	1	3	6	0	0	0	0	1	0	0	50.
영어학부	37	51	19	20	1	0	0	0	1	2	0	1	0	0	0	1	3	0	0	51.8
철학과	20	16	11	4	0	0	0	0	0	0	1	2	1	0	0	1	0	0	0	48.4
미술학부	9	46	1	11	0	0	0	0	3	3	2	8	1	0	0	0	0	0	0	40.9
법학부	45	14	17	8	0	0	1	0	2	1	1	1	1	0	0	0	0	0	0	51.8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7	14	2	4	0	0	0	0	0	0	2	3	0	0	0	0	0	0	0	37.5
식품생명공학과	11	40	3	11	0	0	0	0	0	2	7	16	0	0	0	0	0	0	1	59.3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G)		취업률(%) [B/{A- (C+D+E+F+G) }]*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7	14	2	4	0	0	0	0	0	0	2	3	0	0	0	0	0	0	37.5	
식품생명공학과	11	40	3	11	0	0	0	0	0	2	7	16	0	0	0	0	0	1	59.3	
원예생명공학과	9	20	2	5	0	0	0	0	0	1	3	5	0	0	0	0	0	0	38.1	
유전공학과	33	41	5	10	0	0	0	0	3	2	16	15	1	0	0	0	1	0	48.8	
한방재료공학과	6	19	3	4	0	0	0	0	1	2	1	5	0	0	0	0	1	0	55.6	
식품영양학과	9	31	4	9	0	0	0	0	0	0	2	7	0	0	0	2	7	0	59.1	
아동가족학과	3	47	2	23	0	0	0	1	0	1	0	3	0	0	0	0	4	0	64.3	
의상학과	3	43	0	20	0	0	0	0	0	1	0	0	0	0	0	3	10	0	63.6	
주거환경학과	13	36	4	18	0	0	0	0	0	0	1	1	0	0	0	2	8	0	59.5	
약과학과	12	12	3	5	0	0	0	0	0	0	4	5	0	0	0	0	0	1	57.1	
약학과(2+4년제)	32	9	19	9	0	0	0	0	3	0	3	0	6	0	0	0	0	0	96.9	
한약학과	15	17	6	4	0	0	1	0	0	2	3	5	0	0	0	0	0	0	54.2	
PostModern음악학과	16	41	3	13	0	0	2	0	4	7	1	0	0	0	0	1	6	0	59.2	
시각디자인학과	11	36	4	20	0	0	0	0	1	3	0	0	0	0	0	2	2	0	65.1	
연극영화학과	10	16	2	1	0	0	0	1	5	5	0	0	0	0	0	1	2	0	60.9	
의류디자인학과	3	48	2	26	0	0	0	1	0	2	0	1	0	0	0	0	4	0	67.4	
환경조경디자인학과	11	31	4	13	0	0	0	0	0	0	0	1	0	0	0	2	3	0	47.2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3	24	2	8	0	0	0	0	0	3	0	3	0	0	0	0	0	0	54.2	
러시아어학과	14	15	8	1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67.9	
스페인어학과	13	35	7	17	0	0	0	0	1	3	1	0	0	0	0	0	0	2	62.2	
영미어학부	14	25	8	16	1	0	0	0	1	1	1	0	0	0	0	0	1	0	73.	
일본어학과	12	33	4	13	0	1	0	0	0	0	0	0	0	0	0	1	4	0	45.	
중국어학과	27	40	20	24	1	0	0	0	0	0	1	0	0	0	0	0	0	0	68.2	
프랑스어학과	8	38	5	19	0	0	0	1	0	1	0	1	0	0	0	0	0	1	59.1	

학과 (전공)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G)		취업률(%) [B/(A- (C+D+E+F+G)))*10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 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우주과학과	19	8	7	1	0	0	0	0	0	0	4	3	0	0	0	0	0	0	0	40.
응용물리학과	17	9	4	2	0	0	0	0	2	1	7	4	1	0	0	0	0	0	0	64.3
응용수학과	13	23	5	9	0	0	0	0	1	3	0	3	1	0	0	0	0	0	0	56.3
응용화학과	20	34	8	12	0	0	0	0	0	0	8	12	0	0	0	0	0	0	0	58.8
생물학과	26	25	7	5	0	0	0	0	0	2	9	5	0	0	0	0	1	1	0	40.
수학과	29	12	7	6	0	0	0	0	3	0	4	2	1	0	0	0	0	0	0	47.1
정보디스플레이학과	68	6	45	3	0	0	0	0	0	0	14	1	0	0	0	1	0	0	0	82.8
지리학과(자연계열)	26	35	18	12	0	0	0	0	2	1	1	8	0	0	0	0	0	0	0	63.5
화학과	25	35	11	10	0	0	0	0	2	1	6	20	0	0	0	0	0	0	0	70.6
생체의공학과	32	27	17	14	0	0	0	0	0	0	8	3	0	0	0	0	0	0	0	64.6
전자·전파공학과	239	52	155	29	0	0	1	0	2	1	21	1	0	0	0	0	0	0	0	69.9
전자정보학부	23	1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7.5
컴퓨터공학과	84	25	57	13	0	0	0	0	0	0	9	4	0	0	0	1	0	1	0	74.5
경제학과	107	40	56	20	0	0	0	0	2	0	4	0	1	0	0	1	3	0	1	56.9
무역학과	57	66	32	24	0	1	0	0	2	1	0	1	1	0	0	11	15	0	1	63.8
사회학과	12	18	4	7	0	0	0	0	2	1	3	0	0	0	0	1	4	0	0	63.6
언론정보학과	61	83	33	37	1	0	0	0	5	2	0	7	0	0	0	1	13	0	0	63.4
정치외교학과	29	37	18	10	0	1	0	0	2	1	1	2	1	0	1	1	2	0	0	55.2
골프경영학과	17	5	12	1	0	0	2	0	0	1	1	1	0	0	0	1	0	0	1	88.9
스포츠의학과	36	16	11	5	0	0	1	0	5	4	4	1	0	0	0	0	0	0	0	55.3
스포츠지도학과	92	20	36	9	0	0	2	1	18	3	6	2	9	0	0	0	0	0	1	73.4
체육학과	53	23	30	11	0	0	1	0	6	5	2	2	0	0	0	0	1	0	0	74.6
태권도학과	51	21	11	11	0	0	0	0	5	0	3	0	3	0	0	0	0	0	1	41.5
한의학과	81	36	68	27	0	0	0	1	3	3	3	1	0	0	0	0	0	0	0	90.3
Hospitality경영학부	117	173	66	87	0	0	0	0	5	4	4	3	0	0	0	9	28	1	1	66.4
관광학부	22	57	13	25	0	0	0	1	1	2	0	2	0	0	0	3	12	0	0	67.7

단순 명료한 결론이 있는 설명회

- ◎ 상위6개 대학까지는 인문계열 취업률도 나쁘지 않다.
- ◎ 이과는 전공만 괜찮으면 인서울 대학 대부분 취업률 60% 상회
- ◎ 일부 특성화학과, 계약학과는 취업 걱정이 없다.
- ◎ 결론 : 문과는 대학, 이과는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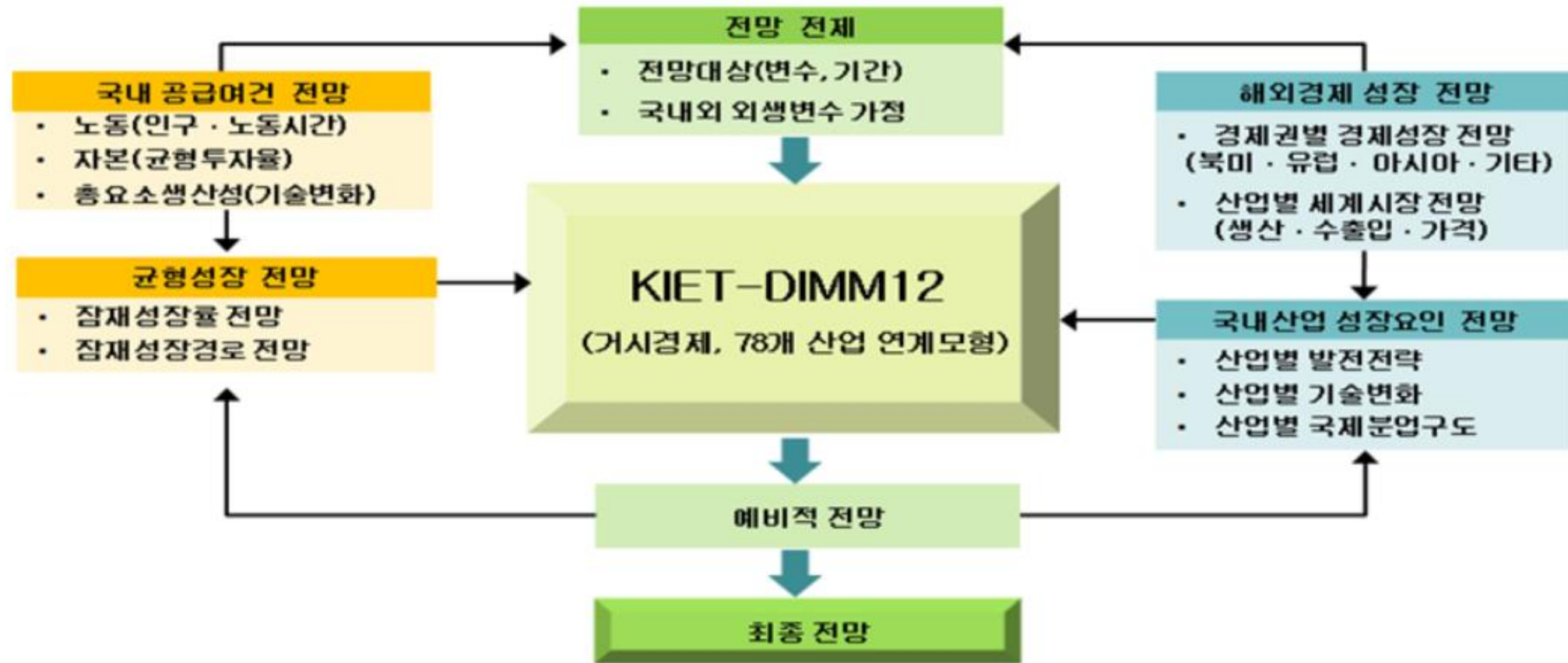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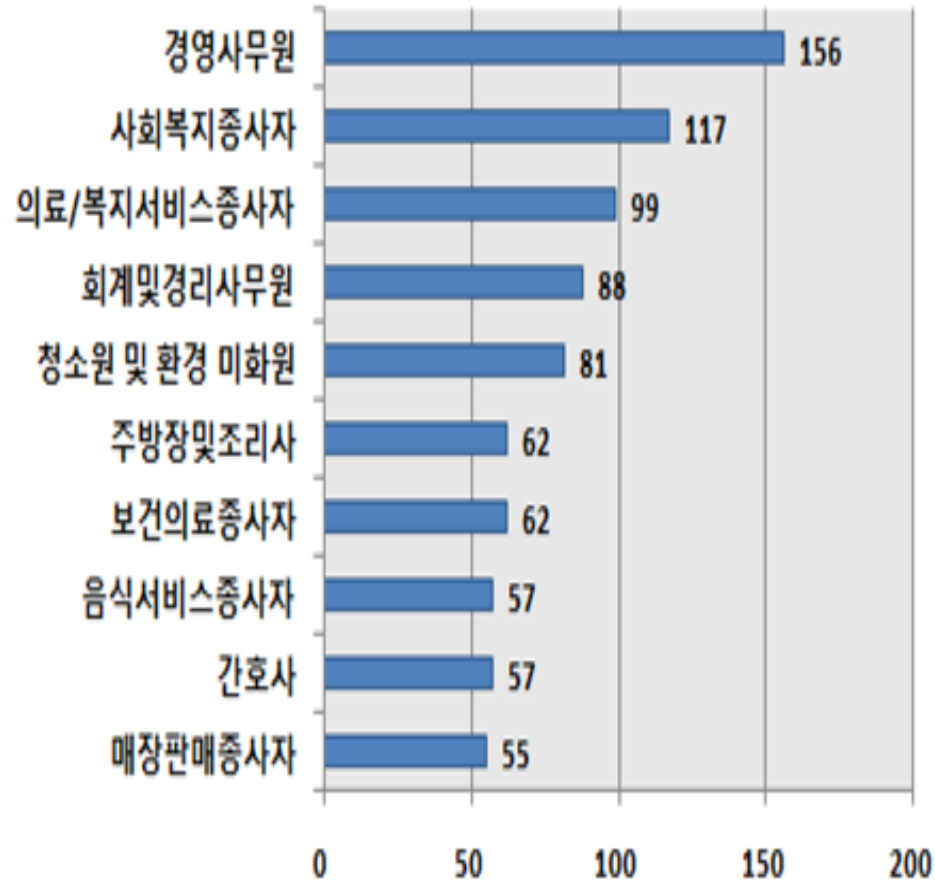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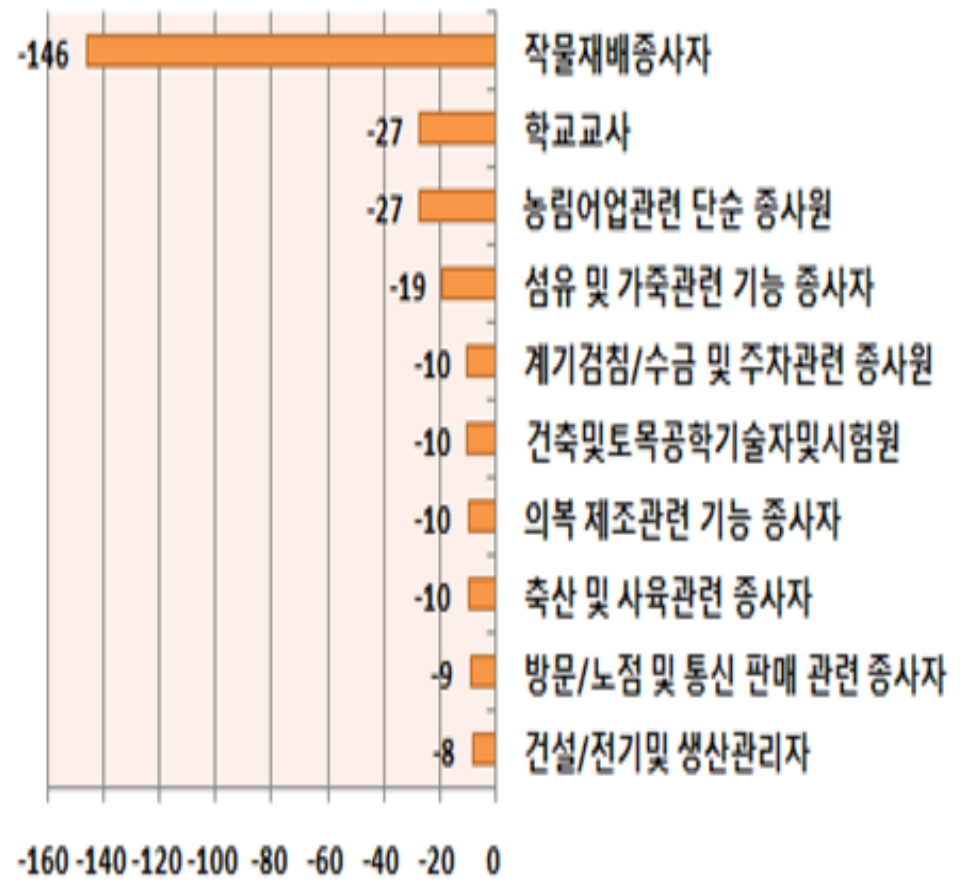
* KIET 산업계량모형(Dynamic Interindustry Macroeconometric Model)은 거시경제부문과 미시적 산업부문(78개 산업)을 연계하여 국민경제의 부문 간 인관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구조적 연립방정식 체계의 형태로 구현한 동태적 산업-거시경제 연계 모형



< 취업자 증가 상위 10개 직업(소분류) >



< 취업자 감소 상위 10개 직업(소분류) >



complicated, difficult VS simple, easy
‘모라벡의 역설’



- ⑨ (연구개발업)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 개발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업의 취업자 증가 지속

산 업	취업자 수(천명)				취업자 증감(천명)			
	'11년	'16년	'21년	'26년	'11~'16	'16~'21	'21~'26	'16~'26
연구개발업	127	205	237	271	78	32	34	6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13	185	213	243	72	28	30	5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4	20	24	28	6	5	4	8

자연계열인원이 인문계열인원의 거의 10배 수준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2016년	2016~2021년	2021~2026년	2016~2026년
생명 및 자연과학전문가	35	58	68	74	10.4	3.1	1.8	2.5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253	291	317	339	2.8	1.7	1.4	1.5
정보시스템 운영자	76	67	72	74	-2.6	1.6	0.3	1.0
화학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9	37	43	46	4.8	3.3	1.4	2.3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53	283	308	323	2.3	1.7	0.9	1.3
안전관리 및 검사원	42	69	81	87	10.6	3.3	1.4	2.4
항공기/선박기관사 및 관제사	20	22	24	25	1.9	2.0	0.6	1.3
의료진료 전문가	76	116	134	144	8.8	3.0	1.4	2.2
약사 및 한약사	28	35	39	41	4.2	2.5	1.0	1.7
간호사	184	217	250	275	3.4	2.9	1.9	2.4
영양사	23	32	37	39	6.7	2.5	1.3	1.9
치료사 및 의료기사	144	187	219	236	5.4	3.2	1.5	2.3
보건의료종사자	152	217	251	279	7.3	3.0	2.1	2.5
사회복지종사자	312	431	506	548	6.6	3.3	1.6	2.4



(단위: 천 명, %)

직업(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2016년	2016~2021년	2021~2026년	2016~2026년
대학교수/강사	106	111	106	103	0.9	-0.8	-0.6	-0.7
학교교사	411	390	375	363	-1.0	-0.8	-0.6	-0.7
유치원교사	60	63	60	59	1.1	-1.0	-0.2	-0.6
법률전문가	24	30	34	35	4.5	2.1	0.6	1.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전문가	53	65	75	80	4.0	3.1	1.1	2.1
기술영업 및 중개종사자	499	470	503	510	-1.2	1.4	0.2	0.8
작가/기자 및 출판전문가	67	90	99	106	6.2	2.0	1.3	1.6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9	23	25	25	4.1	1.7	0.6	1.1
연극/영화 및 영상전문가	59	83	99	104	7.3	3.4	1.1	2.3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전문가	91	133	150	162	7.8	2.4	1.5	2.0
회계 및 경리사무원	630	747	807	835	3.5	1.6	0.7	1.1
비서 및 사무보조원	233	270	283	293	3.0	1.0	0.7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직업(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2016년	2016~2021년	2021~2026년	2016~2026년
경찰·소방 및 교도종사자	157	161	182	191	0.6	2.4	1.0	1.7
경호 및 보안종사자	75	76	87	85	0.2	2.9	-0.5	1.1
의료·복지서비스 종사자	210	332	389	431	9.6	3.2	2.1	2.6
이/마용 및 서비스 종사자	270	303	321	337	2.3	1.2	1.0	1.1
여가 및 스포츠관련 종사자	231	200	224	232	-2.8	2.2	0.7	1.5
상품 대여 종사자	24	26	29	29	1.2	2.1	0.3	1.2
작물재배종사자	1,224	1,042	992	895	-3.2	-1.0	-2.0	-1.5
원예 및 조경 종사자	47	34	32	29	-6.0	-1.5	-2.0	-1.7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98	68	64	58	-7.1	-1.2	-1.9	-1.5
어업관련 종사자	41	48	44	45	3.2	-1.4	0.1	-0.7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140	190	203	211	6.4	1.3	0.7	1.0
섬유 및 가죽관련 기능 종사자	237	197	184	178	-3.6	-1.3	-0.7	-1.0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63	53	46	43	-3.5	-2.8	-1.2	-2.0
목재가공·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9	75	77	77	-1.0	0.5	0.0	0.3
금형/주조 및 단조원	59	47	47	46	-4.3	-0.3	-0.2	-0.2



(단위: 천 명, %)

직업(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2016년	2016~2021년	2021~2026년	2016~2026년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64	74	81	82	2.9	1.9	0.4	1.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26	30	29	29	3.1	-0.8	0.3	-0.3
배관공	76	90	93	94	3.4	0.7	0.2	0.5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42	53	56	59	4.8	1.3	1.0	1.2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48	38	36	35	-4.5	-1.3	-0.4	-0.9
직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8	44	42	42	3.0	-0.5	-0.4	-0.5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37	25	25	24	-7.5	-0.5	-0.6	-0.6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4	33	37	39	7.1	2.0	1.1	1.5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126	175	187	193	6.8	1.3	0.7	1.0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조작원	111	129	135	138	3.1	0.9	0.4	0.7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56	58	60	62	0.6	0.7	0.5	0.6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37	52	55	56	7.4	1.0	0.4	0.7
금속공작기계조작원	143	181	197	199	4.9	1.6	0.2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직업(소분류 기준)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2016년	2016~2021년	2021~2026년	2016~2026년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57	110	125	135	14.0	2.7	1.5	2.1
자동차 운전원	1,080	1,132	1,149	1,161	0.9	0.3	0.2	0.3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37	55	57	59	8.3	0.8	0.7	0.7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	65	67	61	60	0.6	-1.9	-0.4	-1.1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90	311	335	338	1.4	1.5	0.2	0.8
배달원	341	360	383	393	1.1	1.2	0.5	0.9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573	480	499	495	-3.5	0.8	-0.2	0.3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612	753	810	834	4.2	1.5	0.6	1.0
경비원 및 검표원	264	222	231	232	-3.4	0.8	0.1	0.4
가사 및 육아 도우미	227	218	211	211	-0.8	-0.7	0.0	-0.3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350	430	468	478	4.2	1.7	0.4	1.1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130	167	172	174	5.1	0.6	0.2	0.4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159	156	140	129	-0.4	-2.2	-1.6	-1.9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관련 종사원	80	68	61	58	-3.3	-2.1	-1.2	-1.6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T : 2025년 경비, 캐셔, 청소원 일자리 절반이 AI 로봇한테 넘어간다.

F : 농업, 농촌에 희망 일자리 펼쳐져 있다.

올 대학생 졸업반, 10명 중 1명만 정규직 취업



□ 주요 내용

1. 송파 고교 현황
2. 진로, 계열, 전공 현황
3. 3개 주요대학 전공별 취업률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포함)
4. 최상위 대학 선배들이 추천하는 전공별 과목 선택 요령
5. 같은 활동 다른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드디어 출발하였습니다.

**과목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어 이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음으로 접하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내가 선택한 과목이 내 진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등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역시 대학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가이드북 서문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

● 보통 교과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강남 D고
진학부장
통화연결

강남구 D고 진학부장선생님 :

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우선 반편성은 작년 말에 수강 희망 과목 조사를 통해서 마쳤습니다만 과거 문과/이과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과/이과 대신 사회과목과 과학과목 수강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으니까요.

문제는 현재 2학년부터는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이 이동 수업이 된다는 점입니다. 복도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매우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희망하는 진로선택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성재윤소장

안녕하세요 부장선생님, 성재윤입니다.
이제 2015개정교육과정 첫 세대인 고1학생들이 고2가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 준비에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편성 예시)

- 각 계열은 대학의 전공을 편의상 범주화하여 예시로 나타낸 것임

구 분	경상계열(사회 중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 I, 수학 II	경제 수학	수학 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미 문학 읽기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I (전문)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물리학 I	과학사	생명과학 I	생활과 과학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스포츠 생활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한문 I,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중국어 I, 한문 I, 진로와 직업	중국어 II, 중국어 회화 I (전문)

구 분	예술계열(미술 중심)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 I, 확률과 통계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사회	사회, 문화, 세계사	여행지리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과학		과학사	물리학 I, 화학 I, 지구과학 I, 생명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지구과학 II, 생명과학 II,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전공 실기, 매체 미술(전문)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교양	일본어 I, 한문 I, 심리학, 철학		기술·가정, 정보, 논리학, 환경	



전공별 제자와의 대화 모음 (전화 및 대면, 서면으로 진행)



<질문>

1. 대학에서 공부해보니 고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
2. 그런 과목을 선택 할 수 없을 경우 대비방법은?
3. 대학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사회과학 언론정보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된 <국어>나 <영미 문학 읽기>뿐만 아니라 <논술>이나 <사회문제 탐구>를 공부하면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통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매체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언어와 매체>를, 메시지의 구성이나 맥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화법과 작문>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소통의 내용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가 국민과 나누는 소통이나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활동처럼 정치 분야에서의 소통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정치와 법>을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언론정보학은 다른 학문보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했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접하는 자료 중 한국보다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둔다면 언론정보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 언론정보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2

언론정보학은 크게 1개 교과, 3개 과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1개 교과가 국어 교과라는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정보학과에 와서 가장 많이 한 것은 글쓰기와 발표입니다.** <독서>, <문학> 등 읽기 자료를 많이 접하는 과목을 통해 글을 많이 읽어 봐야 하고, 더 수려한 글을 쓰려면 <화법과 작문>을 통해 글쓰기 역량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인문대, 사회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론정보학과를 지망한다면 국어과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이라는 가정 하에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학교과 중 <확률과 통계>와 사회교과 중 <사회·문화>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정보학은 통계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수치화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전달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통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위의 두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이 과목을 공부할 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항 수도 제한적이고 빈출되는 문제 유형과 풀이만 외우면 쉽게 맞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큰 코를 다쳤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기초가 되어야만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문대학 철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교과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철학 공부를 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철학>, <논리학>, <종교학>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닌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택이 원활한 교과와 과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대학의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일 것입니다. 특히 철학에서는 밀도 있는 글을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찾아보고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철학과에서는 영어로 된 논문이나 책을 읽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철학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교과가 수학입니다. 철학의 기본이 어떤 주장을 논증하는 것인데 그러한 논증의 구조를 국어나 영어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학이죠.



기계공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

무엇보다 수학과 물리학 교과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적분이 제대로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꼭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서는 벡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13개의 과학 과목 중에 <통합과학>, <물리학 I>, <물리학 II>는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물리 강의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설되기 때문에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

산업공학적 사고의 틀과 문제해결 도구를 배웁니다. 이 때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들이 수학, 통계학, 프로그래밍이고 1학년 때부터 ‘미적분학’, ‘통계학’, ‘컴퓨터의 개념과 실습’ 등의 교양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목들이 산업공학과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재학 중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공학이 컴퓨터공학은 아니지만 가끔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과 수업을 들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우선 첫 학기부터 ‘컴퓨터의 개념과 실습’이라는 필수 교양 과목을 통해 JAVA라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학 과목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교생 여러분이 이수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학교 밖에서 별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학교에서 <정보>를 이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종 산업공학과가 공대 속의 경영학과라고 많이 불리지만 배우는 내용은 이처럼 수학적 엄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가 공대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들 중 산업공학에서 쓰는 수리적 모델을 이용한 것들이 많고, 머신러닝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 경제 관련 과목인 <실용경제>나 <경제 수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선배의 추천 과목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은 전공 분야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교과에서 배우는 각 과목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화학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원자/분자의 오비탈 모양은 삼각함수를 이용한 극좌표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함수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심화된 미적분 지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학교과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해가 부족하면 대학 과정의 기초적인 개념의 이해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험 수업에서도 수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 과정보다 실험을 통해 구해낸 데이터의 분석에 중점을 두며 이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일반통계학 지식은 당연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선배의 추천 과목

과학교과 전반에 대한 실력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화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화학 공부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깊이 있게 화학을 공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학문 분야는 사실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두루 공부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의 실력을 두루 쌓는 것은 현재의 연구 추세 및 대학 정책과 관련 있습니다. 단일 전공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구 주제가 한정되기에 두 개 이상의 분야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식 기반을 다져놓는 차원에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한 영어 실력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전공서적이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번역서가 많지도 않으며 그나마 몇 권 있는 책도 번역이 조악하여 엄밀한 지식을 쌓는데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특히 대학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시험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영어논문 읽기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에서 영어 독해의 중요도가 커집니다. 물론, 전공서적에 나오는 전문용어의 경우 평소에 접하는 어휘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을 곁에 두고 읽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기본적인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배로, 효율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선배의 추천 과목

지구과학은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이지만 수학, 물리, 화학과는 달리 ‘순수과학’이라기 보단 ‘응용과학’에 가깝고, 대부분 각 분야를 열어보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응용수학이 혼합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에 대한 기반지식이 탄탄해야만 합니다. 정말 탄탄해야 합니다.(웃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교과의 네 과목과 수학교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그 개념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장차 대학에서 ‘과학’을 ‘논리적’인 학문으로 배우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지구과학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뿐 아니라 대학원 혹은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수학 이론들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대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배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라는 단계에서부터 수학을 잘 공부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I 수준 과목은 이후 대학교라는 공부의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에는 ‘모든 과학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어공부’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학 II 과목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맛보기 버전.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선배의 추천 과목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과목에 주로 등장했던 것은 급수, 행렬, 통계, 해석학, 이산수학이었고 이 건 역시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단원마다의 이해도와 계산능력 등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공부는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물 하층이 튼튼하지 못하면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수학 과목에서의 성취는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I 과목이 II 과목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반 이상은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은 과학 III으로 비유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II 과목을 듣는다면 대학교 수업을 듣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목에 등장하는 실험들을 빼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등장하는 실험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실험들입니다.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선배의 추천 과목

저는 고등학생 때 자연계열이라 불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대학교에 지원할 때는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식품공학과 등을 지원한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4학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고 텡스나 토플 등 자격증을 취득할 때 외에는 따로 영어 공부를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인재를 선발할 때는 물론 대학원 진학 시에도 영어 공인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면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피하게 되면 모든 경우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던 양에서 조금씩만 더 공부해 본다면 졸업 때까지는 상당한 영어 실력이 쌓여있을 것이고, 그 자산은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영어로 주눅이 드는 일, 영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합격한 선배들의 추천과목과
대학입학사정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이 정확하게 일치함.



20대 초반이 10대 후반에게

- ◎ 10대에 행복 하려면 _____ 잘 해야 한다.
- ◎ 20대에 행복 하려면 _____ 잘 해야 한다.
- ◎ 30대 이후 평생 행복 하려면 _____ 잘 해야 한다.



수포대포 / 영포직포 / 독포인포

“ 대학은 양서를 골고루 읽은 기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고교생을 좋아한다. 공대에도 기본적 인문학 소양이 필요하고 인접 학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춘 뒤에 본격적인 전공서적은 대학에 와서 읽어도 충분한데 고교생 수준에서 무슨 대학 전공에 딱 맞춘 책만 보는가??” --- 서울대 김정범 교수 外 다수

진솔한 말(진솔) VS 듣고 싶은 말(솔깃)

※ 책을 읽지 않고 5분으로 해결하기 방법 ebsi 대입논술 개념필독서 100강 활용법.

- 차마설은 인문인가 상경계열인가 이처럼 같은 책을 보고 배우고 깨달은 점은 다르다.
새로운 창의적 해석과 적용력이야말로 미래 인재의 모습.
- 이타적 유전자 등





선생님

NEW
모든강좌

EBS교재

풀서비스

수시·논술

입시정보

기출문제

시기별 맞춤강좌 찾기 ▾

빠른 강좌 찾기 ▾

합격을 부르는 비책

수시·논술

시기별 추천 강좌



- + 학생부 전형이 뭐예요?
- + 경찰대/사관학교 기출 특강
- + 모든 시리즈 보기

학생부 종합전형



- + 학생부 전형이 뭐예요?
- + 학생부 전형 우수 사례
- + 학생부 전형 최종 점검

Home > 수시·논술 > 강좌상세

강좌 상세정보



[대입논술] 개념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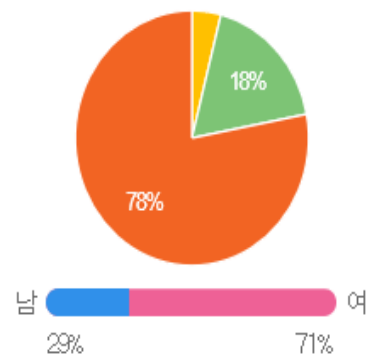
제작완료



바로가기

- 과목 : 인문논술
- 학습단계 : 기초
- 대상학년 : 공통
- 강수 : 100/100 [제작완료]
- 선생님 : EBS
- 교재 : 교재가 없는 강좌입니다.
- 후기평점 : ★★★★★ (90건)
- 맛보기 : 일반화질 > 고화질 >

● 고1 ● 고2 ● 고3·N수



강의명	강의보기 new 학습창안내		강의 시간	첨부	탑재일	다운로드 <input type="checkbox"/>	학습 현황
그리스인 조르바	▶ 일반화질	▶ 고화질	05:42		14.07.24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5.02.04</div>
이타적 유전자	▶ 일반화질	▶ 고화질	06:16		14.07.24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5.02.04</div>
박사가 사랑한 수식	▶ 일반화질	▶ 고화질	05:25		14.07.24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5.02.04</div>
천변풍경	▶ 일반화질	▶ 고화질	05:55		14.07.24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06</div>
허생전	▶ 일반화질	▶ 고화질	07:11		14.07.31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06</div>
관촌수필	▶ 일반화질	▶ 고화질	06:17		14.08.06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06</div>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 일반화질	▶ 고화질	05:43		14.08.12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06</div>
털없는 원숭이	▶ 일반화질	▶ 고화질	07:33		14.08.13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06</div>
당신들의 천국	▶ 일반화질	▶ 고화질	07:40		14.08.22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10</div>
위대한 유산	▶ 일반화질	▶ 고화질	05:32		14.08.22	<input type="checkbox"/>	<div>완료</div> <div>16.05.10</div>



책 읽어주는 도서관

🏠 자료검색

책 읽어주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오디오북 목록입니다.
* 정기이용증 소지자에 한하여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강/취미/실용

경제/경영 ✓

소설

시/에세이

인문/역사

✓ 발행연도 최신순 ✓ 책제목순

전체



경제/경영

젊은 중국이 몰려온다

저자 : 류중훈 저자 상세 : 류중훈 원작

출판사 : 21세기북스 발행년도 : 2018 회차 : 총 8 회 시간 : 02시간 13분 20초

한줄소개 : 13억 명이 여는 지갑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



1 2 3 4 5 6 7 8



경제/경영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자 : 라익형 저자 상세 : 라익형 원작

출판사 : 피톤치드 발행년도 : 2016 회차 : 총 8 회 시간 : 01시간 54분 35초

한줄소개 : 금융회사의 악탈, 카지노 경제에서 살아남기



1 2 3 4 5 6 7 8





전공별 제자와의 대화 모음 (전화 및 대면, 서면으로 진행)



<질문>

1. 대학에서 공부해보니 고교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
2. 그런 과목을 선택 할 수 없을
경우 대비방법은?
3. 대학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여러 학과 선배의 의견 종합 1

- 대학 수학에 필수적이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되지 않는 과목은 없다고 생각.
- 현실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공 지식은 어차피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테니 공부하기 위한 기초와 다양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는 데 집중할 것.
-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탐구 분야는 시간, 공간, 물질 등으로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에 대한 비평을 찾아 읽어보기도 하면서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점점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재벌가 남자 주인공과 가난한 집안의 여주인공이 만나는 서사구조의 전형적 드라마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저보다 깊고 통찰력 있게 생각한 사람들의 비평을 접하면서 문학작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평소에 접하는 여러 형태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문학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학과 선배의 의견 종합 2

- 고1 때 도서관 청소예 배정받아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고급 수학>이라는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목고에서 사용하는 교재라는 것을 듣고 그저 막연히 “이야 과학고 친구들은 어려운거 배우네.”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업공학과로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한 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던 중 선형대수 공부가 필요함을 알았고 그러던 중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 짬이 나면 틈틈이 책을 통해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수학을 공부하며 행렬식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구해 혼자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튜브나 TED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공부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광고와 오락 영상이 쇄도하지만 학습과 관련된 영상도 많습니다. ‘How to learn english’라는 검색어를 사용해 보세요. 다양한 영어 공부 동영상 자료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가 별도로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동영상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학습 자료입니다.



여러 학과 선배의 의견 종합 3

- 가령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문법이나 작문 과목을 충분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게시된 맞춤법/표준어 규정은 꽤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마음먹고 읽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문제집으로 배우다 보면 지엽적인 내용에 매몰되기 쉬우니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이곳에 나온 내용을 읽어 보길 권합니다. 어문 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누리집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어서 ‘내 손안의 국어 선생님’인 셈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생길 때,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다가 맞춤법이 헛갈릴 때, 자주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어 공부를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정치와 법'을 실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사이트, '한국지리' 정보로 가득한 '국토지리정보원' 등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우미입니다.



여러 학과 선배의 의견 종합 4

- ‘K-MOOC’, ‘SNUON’을 통해 교수님들의 실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인터넷 강의로 차근차근 익히는 것이 공부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씩 따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독학보다는 시간이 덜 들겠지만 이것도 본인이 시간을 비워서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과목이었지만 제 의지를 투영함은 물론 공과대학에서 필수적이라는 <물리학Ⅱ>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미 이수하는 과목이 많고 정말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인데 자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과목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를 위해 <물리학Ⅱ>로 수능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학과 선배의 의견 종합 5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학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원리와 배경지식 또는 탐구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예시로 “민주주의는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윤리와 사상> 과목이나 <고전과 윤리> 과목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에서 근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세계사>나 <한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학생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어서문학 전공을 하면서도 세계사에서 배운 지식이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문학이 당대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창의적인 문제 접근 또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꿈꾸는 나의 미래

미리 들어보는 대학 강의



국민

참여 대학

* 참여대학 계속 확대



교육부 : 사업 기획 및 총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 위탁 받아 주관, 시행

K-MOOC기획위원회

• 교육부, 관계기관,
참여대학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 KOCW 변환개발,



• 공용플랫폼 구축



• 대학간 네트워크



• 콘텐츠 제작 지원

국내 OCW/OER 기관 현황



KOCW



SNOW



HOWL



고려대 OCW



울산대 OCW



경희대학교



펭귄스텝



성균관대학교 OCW



서울대학교 OCW

OER

해외 OCW/OER 기관 현황



GLOBE



ARIADNE



LORNET



COURSERA



미국 MIT OCW



Open Courseware



OpenupEd



edX



TED



UDACITY



NovoED



ACADEMIC EARTH



인문	국문학과 사학과 인문 영문학과 제2외국어학과 철학과 (문·사·철)	자율	모의유엔참가 / 다문화박물관견학/문학관견학 / 한글박물관견학/역사박물관견학 / 문화유적지 탐방 / 현장체험학습참가/문학기행참여 / 교내 경시대회 참가 (국어, 사회, 한자, 외국어, 한국사 / 교내 논술대회 참가 (인문논술) / 문학작품공모전 참가/영어말하기 대회 참가 / 교내토론대회 참가 / 백일장 참여 / 독후서평쓰기대회 참여 /영어듣기평가가 참가 /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 /전문가특강 참여 /주제탐구 프로젝트 참여 / 국제학술 심포지엄 /융복합세미나 참여 / 테마 교육여행 참여 /독서아카데미 참여 /인문학캠프 참여 / 관련분야 학회 참가
		동아리	토론동아리 (독서, 인문, 영어, 역사, 융합) /논술동아리 / 문예창작 동아리 / 영어회화 동아리/영자신문동아리 / 외국어회화동아리 / 외국문화동아리 / 문학 감상반 / 다문화탐구동아리/글로벌 언어문화 / 역사탐방동아리/박물관&갤러리 견학반 / 세계문화의 이해 / 인문학 연구반 / 고고학 유적 발굴 동아리
		봉사	청소년 문화재보호활동/다문화가정 학생 돕기/글로벌 봉사단 참여편견 극복 캠페인 참여/교육봉사 / 보육원/고아원/양로원 자원봉사/재해구호 자원봉사/군부대 위문활동
		진로	인문학 특강참여/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응시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응시/외국어 시험 응시/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활동/대학탐방/학과탐색 /직업체험 /기업탐방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진로검사 문체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 방문 (한국콘텐츠 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p>[추천도서]</p> <p>· 언어능력을 기르는 국어수업 / 말들의 풍경/ 한시 미학 산책 / 두근두근 내 인생/ 시인을 찾아서 / 나도 건방진 우리말 달인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무정 / 님의 침묵 / 서정주시전집 / 삼대 / 삼국유사</p> <p>· 논어 / 사기 / 삼국지 / 유기 / 수호전/ 생활의 발견/ 중국 견문록 / 아Q정전 / 한시 미학 산책 / 역사란 무엇인가 / 삼국유사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파우스트 / 안네의 일기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안네의 일기 / 데미안 / 변신 / 에밀 / 레미제라블 / 좁은 문 / 어린왕자 / 호밀밭의 파수꾼 / 노인과 바다/ 1984 / 톰 소여의 모험 /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 제인 에어 / 오만과 편견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위대한 개츠비 / 죽은 시인의 사회 / 그리스로마신화</p> <p>· 나의 일본사람 탐험기 / 설국 / 상실의 시대 / 축소지향의 일본인 / 중국어의 기초 / 기초중국어회화 /중국 고전과 중국 소개 서적 / 데미안 / 어린 왕자 / 철학vs철학 / 영혼의 역사 / 생각하고 토론하는 중국철학이야기 /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 / 철학에세이</p>	

※ 인문큐레이션 '테마갤러리'

☐ 하나의 주제, 다양한 생각
'칼럼', '에세이', '웹툰', '인터뷰'

☐ 인문,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공연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 인문의 향기가 스며든 전국 8도 이야기
'골목콘서트', '인문유랑', '인문지도'

☐ 시민기자단 인문쟁이 '탐구생활'

☐ 내 손안의 검증된 '인문정보'

※ 뉴스레터는 매월 마지막 날
신청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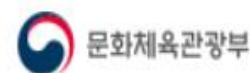
월 인기 콘텐츠만 모아서 추천 받고 싶다면
인문360도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인문360도 뉴스레터 무료 정기 구독신청

구독신청 하기 >



·집거부 관련기관 사이트 사이트맵 대표번호 : 02-739-3950



사람은 궁금할 때 가장 진실하다.
질문의 크기가 존재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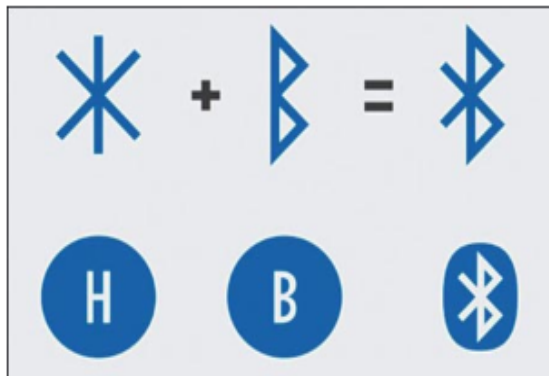
[현미경] '블루투스'를 왜 블루투스라 부를까?

이철민 선임기자

입력 : 2018.04.18 03:00

덴마크 왕 '하랄 블로탄'서 따와

"평화적으로 민족 통합한 왕처럼 PC·핸드폰 잘 연결되라는 뜻"



덴마크를 통일한 왕 하랄(*) 블로탄(B)의 룬문자 이니셜을 합쳐서 만든 블루투스의 로고.

지난 14~15일 발트해에 있는 독일 북부 뤼겐섬에선 10세기 덴마크의 한 국왕 시절에 만들어진 600여 개의 동전과 목걸이, 브로치 등이 대량 발견됐다. 지난 1월 13세 소년과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이 지역에서 은화 한 닢을 발견한 이후, 전문가들이 약 400m² 면적을 발굴해 AD 980년 쯤에 묻힌 이 유물들을 발굴했다.

이 유물이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현재 IT 기

기 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Bluetooth)'의 이름과 로고가 이 유물이 쓰이던 시절 이 지역을 지배했던 덴마크 왕 '하랄 블로탄 고름센'(AD 935~986년)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그의 별명이 '블로탄' 즉 영어로 '블루투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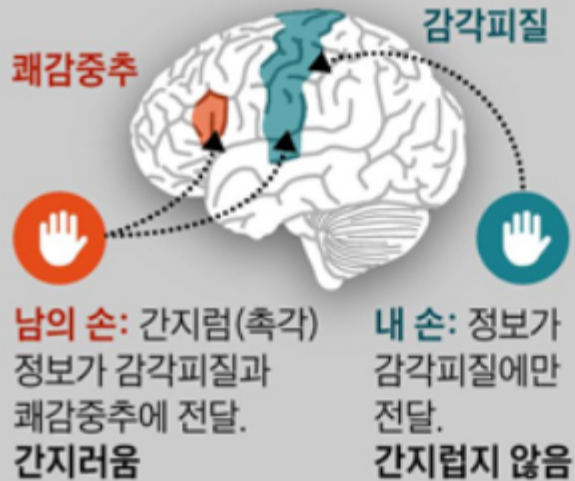
그의 치아가 썩어서 퍼렇고 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8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만든 인텔과 에릭슨, 노키아, IBM 등의 엔지니어들은 이 통합된 통신 규격의 이름을 놓고 고민하다가 덴마크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인 '블루투스'를 떠올렸다고 한다. 에릭슨과 노키아가 발트해를 둘러싼 스웨덴과 핀란드에 각각 기반을 둔 기업인 것도 한 몫 했다.

로고도 '하랄'과 '블로탄'의 이니셜 H와 B에 해당하는 바이킹족의 알파벳 룬(Runic) 문자 *와 B를 합쳐서 만들었다.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했던 인텔의 짐 카다크(Kardach)는 "블루투스 왕이 평화적인 협상으로 민족들을 통합한 것처럼, 노트북 PC와 휴대전화가 매끄럽게 통신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한 바 있다.



왜 스스로는 간지럽히지 못할까?



남이 겨드랑이,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웃지만, 자신이 간지럽히면 웃지 않는다. 간지럽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간지럼 탈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촉각 정보는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감지를 해 뇌로 전달한다. 간지럼(촉각)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감각피질이다<그래픽>.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자기 자신을 직접 간지럽히는 것은 일종의 계획된 운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촉각 정보 신호를 줘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관여를 한다"며 "뇌가 간지럼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간지럼에 대비, 간지럼에 대한 반응을 약화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간지럽힐 때는 뇌는 다른 사람의 손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어 간지럼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우면 촉각을 관장하는 감각피질만 활성화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간지럼을 태우면 감각피질이 자극되는 것은 물론, 쾌감을 관장하는 쾌감중추도 자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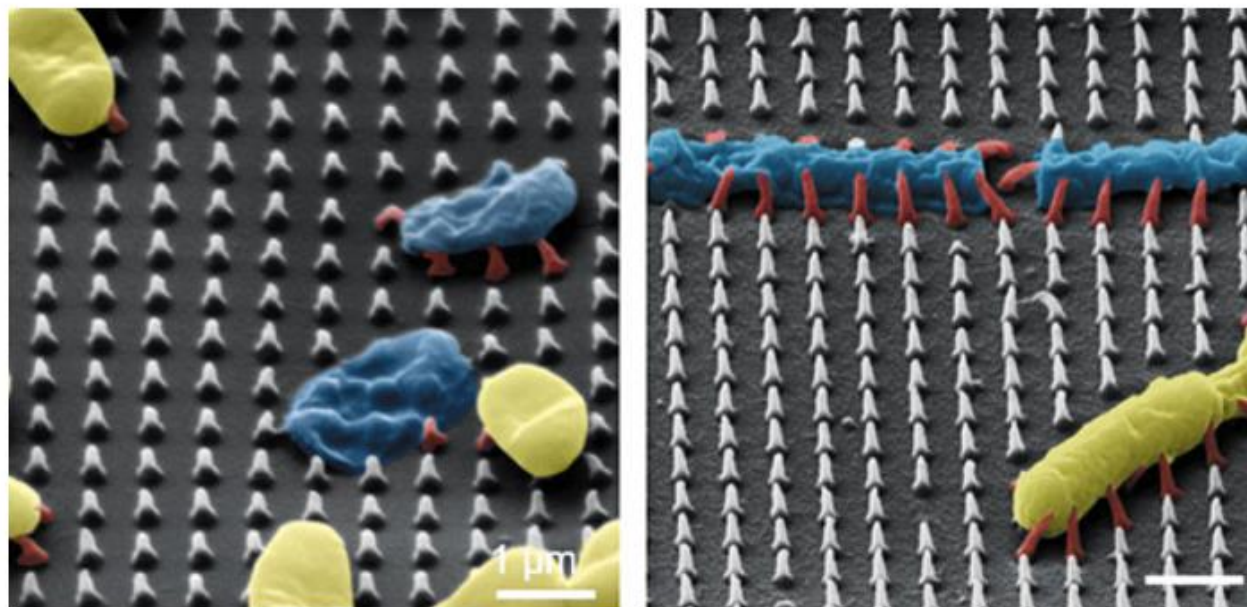
한편,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정신분열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호주 연구가 있다. 스스로 간지럼을 태우는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착각해서 간지럼을 탄다고 한다.



테크 | [사이언스 카페] 가슴가.임플란트에 세균 못 달라붙게 할 수 있네

국내 연구진이 해조류의 표면 구조를 모방해 가슴기 내부에 인체에 해로운 박테리아(세균)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같은 방법으로 선박에 따개비 같은 해양 생물들이 달라붙거나 인공 관절, 치아 임플란트에 노폐물이 흡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정훈의 교수 연구진은 20일 "해조류 표면처럼 뾰족한 바늘들이 무수히 나 있어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필름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매크로 레터스' 1월호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해조류를 모방한 항균(抗菌) 필름의 미세 돌기에 찔려 죽은 박테리아(파란색)와 사멸 예정인 박테리아(연두색)의 전자현미경 사진. /U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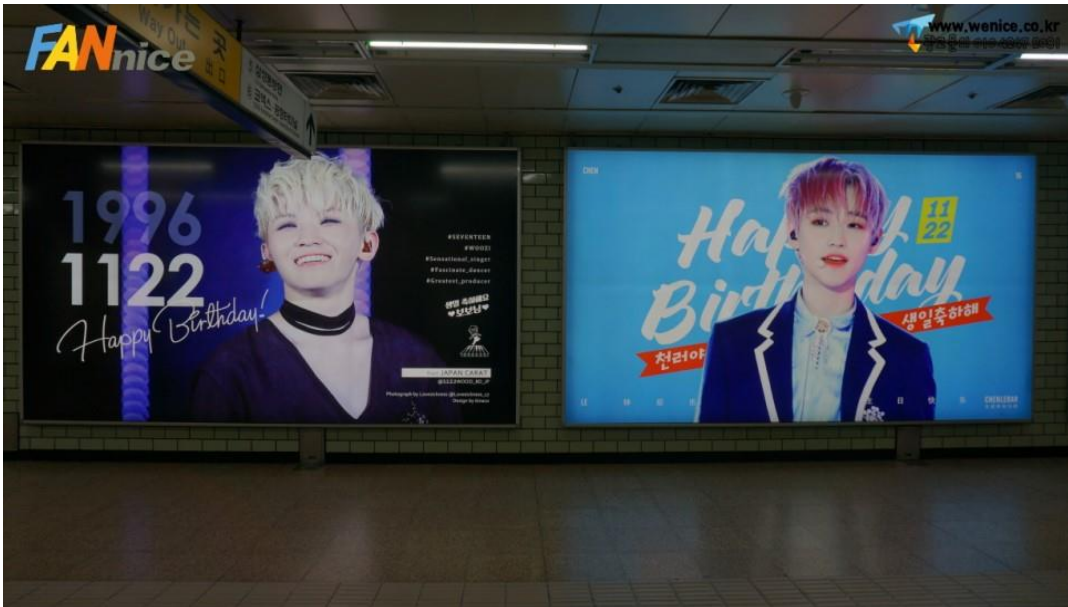
다양한 질문	적합 전공
보행자와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를 위한 앱개발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하지 않은가?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도덕과 윤리 정립은?	인문학 전반 윤리학, 철학 등





다양한 질문	적합 전공
<p>점, 선, 면의 배치와 크기의 왜곡이 주는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난해함</p>	<p>미학과, 미술 관련 학과, 큐레이터 등</p>
<p>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물리학적, 수학적, 조형적 의미는 무엇일까?</p>	<p>물리학과 수학 (기하와 벡터 미분학, 적분학)</p>
<p>난해한 현대 미술 작가 (크렉 마틴)의 그림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여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p>	<p>경영학과 등 상경계열</p>





다양한 질문	적합 전공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왜 기업 광고가 줄고 연예인(아이돌) 광고로 도배가 되었는가?	경제 경영 등 상경계열
사람의 머리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광고는 무엇일까?	광고홍보 언론홍보영상
일반 형광등과 LED 전등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일까?	물리학과 화학과 신소재학과 환경공학과



아빠·엄마 대신 ‘부모1·부모2’ 프랑스, 학교 서류 표기 논란

同性부모 차별 금지 취지지만
“부모 性역할 통째 부정” 비판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同性) 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는 취지이지만 부모의 성 역할을 통째로 부정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도 많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1’이 꼭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는 각 가정의 자수에 맡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의 발레리 프티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이 학교에서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어머니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동성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다. 프랑스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는 “동성 부모를 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공화당의 자비에 브레통 의원은 “결혼이든 동거든 95%가 남성과 여성 커플인 상황에서 지나친 것 아니냐”고 했다. 절대다수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성 역할을 나누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동성 결혼을 반대해온 단체 LMPT의 튀도뵈 로셰르 대표는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인간성 파괴 조치”라고 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누가 ‘부모1’이 되고 ‘부모2’가 되어야 하느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다양한 질문

적합 전공

한국과 프랑스
학생부 비교

교육학
행정학

바람직한 인간관계
부모의 역할
인간소외, 동성애

윤리학
철학

최근 사회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



